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정창권(고려대)

I. 머리말

(1) 고전문학의 현대적 수용방법

이 글은 조선조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이하 <완월>로 약칭)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본고는 먼저 사극, 특히 새로운 형태의 역사 가족드라마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완월>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대라고 한다. 날이 갈수록 방송이나 영화, 게임, 캐릭터, 공연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이 커질 뿐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원천소스(원작, 이야기)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전달 매체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천소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한데, 고전문학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과 이미 충분히 검증된 분야이기 때문에, 각종 문화콘텐츠의 원소스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사실 요즘처럼 획일화된 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소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고전문학을 잘 파악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리라 본다. 만약 고전문학을 현대적으로 수용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일조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17세기 <소현성록> 연작을 비롯해서 18세기 <완월회맹연>, <옥원재합기연>, <현씨양옹쌍린기>, <명주보월빌> 등 대하소설은 중국의 <삼국지>에 필적할만한 방대한 분량과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원형스토리를 능가하는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¹⁾. 게다가 대하소설에는 옛 여인들의 향취가 느껴지고, 그녀들이 겪었을 법한 고뇌와 번민, 사랑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을 현대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방법은 아직까지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 물론 대하소설을 토대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구분기·송성욱에 의해 이루어진 적이 있다. 그들은 대하소설 18편을 대상으로 시놉시스와 단위담, 에피소드 등의 창작자료, 캐릭터와 배경 및 소품 일러스트 등의 시각자료, 원작 스토리나 게임 등의 활용예시를 개발했다. 그리하여 장차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²⁾.

하지만 본격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³⁾. 그래서 대학의 국문학과가 가지고 있는 풍

1) 구분기·송성욱,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방안> 사례발표-조선시대 대하소설을 통한 시나리오 창작소재 및 시각자료 개발,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4, 55면.

2) 구분기·송성욱, 위의 논문, 2004, 참조.

부한 인적, 지적 자원이 문화콘텐츠의 현장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대하소설 <완월>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 특히 사극 콘텐츠를 먼저 개발함으로써, 고전문학의 현대적 수용방법론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드라마 제작을 위한 사전의 기획, 개발 단계로, 아이템 발굴과 매체선정, 각색방향, 시놉시스, 멀티유즈화 방안 등 콘텐츠의 전체적인 윤곽을 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자 한다.

(2) 숨겨진 고전명작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고전소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로, 김만중의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연암 박지원의 작품들, 혹은 어릴 적부터 많이 접해왔던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이나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등 뿐이다. <완월>을 비롯한 대하소설에 대해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매우 생소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대하소설은 제목만 들었을 때는 무슨 중국소설의 번역작이거나, 내용도 별로 흥미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효제충신(孝悌忠信) 등 유교사상에 심취한 일종의 수신서(修身書)'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다.

<완월>은 180권 180책에 달하는 국문 대하소설로, 단일 작품으로는 중세시대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이 아니었을까 한다. 과거 고전소설을 가장 많이 읽었다는故 김기동 선생조차 이 작품을 읽는데 무려 3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전해지고, 필자 역시 김진세 선생의 현대 독해본⁴⁾을 가지고 읽었음에도 처음에는 하루 18시간 이상씩 읽었어도 꼬박 6개월이 걸렸던 기억이 난다. 더욱이 <완월>은 그 같은 분량에 걸맞게 탁월한 상상력이 발휘되어 있으며, 특히 조선후기 대가문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사를 다채롭게 포착해내고 있다⁵⁾. 그래서인지 가람 이병기는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서 이 작품에 대해 특별히 '인간행락의 총서'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⁶⁾.

본디 <완월>은 1966년 창경궁의 낙선재 문고를 정리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낙선재 문고에선 소설, 가사, 기행문 등 총122종 2,361책의 고전작품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 72종 1,500여권의 대하소설은 학계에서조차 전혀 알려진 적이 없어 충격을 더해주었다⁷⁾.

하지만 이들 소설은 국적이거나 작가, 서지사항 등 작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한동안 연구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들 소설은 표면적으로 작품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엔 중국소설의 번역 혹은 번안이 아닐까 생각했다.

대하소설, 특히 <완월>에 대한 연구는 1988년 임형택 선생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굴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⁸⁾.

<완월>은 안검제의 어머니가 지은 것인데, 궁중에 흘러보내 명성과 영예를 넓히고자 하였다(조재삼, 《송남잡지》 '남정기'조).

즉, <완월>은 안검제의 어머니인 이씨부인이 지은 것인데, 그녀는 이 작품을 궁중에 들여

3) 조혜란, 고전소설과 문화콘텐츠,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회, 2006.

4)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전12책, 1987~1994.

5)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246면.

6) 정병설, 《완월회맹연연구》, 태학사, 1998, 11면.

7)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75면.

8)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8.

보내 비빈(妃嬪)이나 기타 궁녀들로 하여금 읽게 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다⁹⁾. 위의 낙선재본 문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궁녀들은 최상층 독자이자 최대의 후원자였기 때문이다.

이후 정병설과 한길연은 이씨부인의 친정집안 사람들의 문집인 <이가세고(李家世稿)> 등을 통해 작가문제를 더욱 진척시켰다¹⁰⁾. 그리고 필자는 조선시대 여성사와 소설문화사 등 외적인 측면에서 작가문제를 보완하였다¹¹⁾.

결국 <완월>은 18세기 초, 중반 이씨부인(李氏夫人: 1694~1743)이란 사대부가 규방여성에게 의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부인은 당대 명문장가인 이언경과 안동권씨의 2남 8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고, 안개(安鏞: 1693~1769)와 혼인하여 안관제, 안겸제 등 3남 1녀를 두었다. 여사(女士), 곧 여성선비의 풍모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경기도 파주에 묘소가 있다.

물론 이씨부인이 180권 180책을 전부 다 지은 것은 아니고, 이전에 자신이 지었거나 주위 사람들이 지은 것들을 폭넓게 수집해서 한편의 대하소설로 꾸민, 일종의 '편집소설'로 추정된다¹²⁾. 즉, <완월>은 이씨부인이 주도하되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은 집단창작 혹은 공동창작인 것이다¹³⁾.

현재까지 남아 있는 <완월>의 이본은 모두 3종으로, 180권 18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의 일명 낙선재본, 180권 93책의 서울대 규장각본, 낙질인 6권 5책의 연세대본이 있다.

II. <완월>을 활용한 드라마 콘텐츠 개발방안

(1) 매체선정

일반적으로 아이টে임을 발굴했다면, 우선 그것을 표현할 매체부터 선정해야 한다. 요즘은 매체가 워낙 다양하여 그에 따라 스토리텔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완월>을 비롯한 대하소설은 TV 드라마와 유사하여 원전 그대로를 살려도 충분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듯하다. 이는 비단 필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도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이다. 특히 <완월>은 현대의 가족드라마와 유사하다.

<완월>의 드라마화 가능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완월>은 제목부터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이다. 작품 서두에서 중심 가족인 정씨 사람들이 여타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완월대에 올라 자녀들의 혼인을 약속하는데,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은 그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다. 모티프 하나로 전체 내용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제목을 내세운 것이다¹⁴⁾.

다음으로 이 작품도 여느 고전소설처럼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명나라 영종대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필화(筆禍)를 피하거나 작가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실제 배경은 작가가 발 딛고 서있던 18세기 조선의 문벌사회이

9) 조혜란, 흐르는 규방, 넘나드는 이야기, 《문화와 나》, 2006년 7월호.

10) 정병설, 위의 책, 1998.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 정창권, 위의 책, 2002.

12) 정창권, 위의 책, 2002, 89면.

13) 정병설, 위의 책, 1998, 160~164면 참조.

14) 정창권, 위의 책, 2002, 125면.

다. 그리고 이같은 무국적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 사극의 트렌드인 퓨전사극에 오히려 더 적합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글로벌콘텐츠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V 드라마, 특히 가족드라마는 가정을 무대로 하고,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소재도 자극적인 것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삶의 애환을 그려나가곤 한다¹⁵⁾. <완월>도 역시 조선후기 대가문을 배경으로 그속에서 웃고 울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다단한 가족생활, 말썽 많은 부부생활, 복잡한 가문관계 등 규방의 여성작가가 평소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꼈음직한 것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¹⁶⁾.

나아가 <완월>은 요즘 TV의 가족드라마처럼 그러한 가족이나 부부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대화체로 잔잔하게 풀어나간다. 대개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 등의 남성소설에서는 인물의 외적 행동을 묘사해서 하나의 사건을 들려주곤 한다. 이들 소설에서의 대화는 비교적 짤막하고 제한적이며, 결국은 행동에 종속될 뿐이다. 하지만 <소현성록>, <완월> 등의 여성소설에서는 인물의 외적 행동보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⁷⁾. 그와 함께 <완월>에서는 가족들의 단편적인 생활상이라든가, 가족모임을 통해 답소를 나누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¹⁸⁾.

요즘 사람들이 드라마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인지 최근 방송 3사는 드라마의 편성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다. 또 케이블이나 DMB, IPTV 등 매체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촉망받는 분야는 아마도 드라마일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그 어느 분야보다 성공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다. 물론 <완월>의 드라마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작품내용

<완월>은 조선후기 대가문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4대에 걸친 정씨 가족과 그 일가친척인 장씨, 소씨, 주씨, 한씨 등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복잡다단하게 들려주고 있다.

작품에서 흥미를 끌만한 극적 상황, 곧 플롯도 주로 가족간의 불화인 가족갈등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집안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후갈등, 부부가 생활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부갈등,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형제갈등, 장인과 사위가 서로 대립하는 용서갈등이 그것이다.

작품의 서사구조는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옴니버스 같이 통일성이 부족하고 단절감마저 느껴진다. 대개 옴니버스(Omnibus)란 '합승버스'란 뜻으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적인 짤막한 이야기들이 한데 묶여있는 경우를 말한다¹⁹⁾.

실제로 <완월>은 정씨 가족의 대를 이은 이야기가 수직으로 흐르면서, 그들을 둘러싼 여타 가족이나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평에서 계속 끼어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한 줄기의 나무에서 여기저기 뻗어나가는 가지들처럼, 정씨 가족을 중심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은

15) 유진희, 《TV 드라마 잘 쓰기》, 서울문화포럼, 2004.

16) 정창권, 위의 책, 2002, 103~104면.

17) 정창권, 위의 책, 110면.

18) 정병설, 위의 책, 1998, 95~105면 참조.

19) 유진희, 《영화와 TV드라마를 위한 각색 입문서》, 삼보, 2007, 90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180권 180책이라는 대하소설을 꾸민 것이다.

우선 이 작품은 제1대 정한·서태부인→제2대 정잠·소교완 등→제3대 정인성·이자염, 정인광·장성완 등→제4대 정몽창 등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정씨 가족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다. 물론 끝부분에 제5대 정천홍의 이야기가 간략히 나오지만, 그것은 정씨의 후손에 대한 간략한 예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제1대 정한은 서두에서 집안의 계후와 자녀들의 혼사를 결정하고 죽고, 제4대 인물들은 대체로 <정씨후록>이란 후편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정한의 배우자인 서태부인을 비롯한 제2·3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한데, 제2·3대 정씨 남성들은 비록 집밖에서는 영웅적인 인물이나, 집안에서는 언제든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평범한 자식들에 불과하다. 특히 제2대 정잠은 집안의 계후문제를 둘러싸고 후처 소교완과 지속적인 불화를 일으키고, 제3대 정인광은 장인 장모의 잘못을 아내 장성완에게 전가하며 심한 부부싸움을 벌인다. 이처럼 <완월>의 중심 이야기는 여가장 서태부인의 가문관리와 함께 제2·3대 인물들의 가족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²⁰⁾.

다음으로 <완월>은 정씨 가족을 둘러싼 여타 가족이나 인물들의 주변 이야기가 유독 발달한 소설이다. 사실 이 작품은 180권이란 거대한 분량에 비해 중심 이야기는 상당히 빈약한 편이다. 그 대신 중심 이야기의 도중에 짙막한 사건들이 계속 삽입되면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정씨와 그 이웃인 장씨 사람들의 결혼담을 매개로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가문영웅으로 추앙되는 주성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한난소, 외모로 인해 비극적인 인생역정을 걷는 여씨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씨 집안의 후계자인 정인성을 매개로 당시 여성들의 사랑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웅적인 남성을 짝사랑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말거나 여승(女僧)이 되어 버리는 석순영과 만초란, 적장(敵將)과의 사랑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이후 그것이 허구로 밝혀지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해룡공주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완월>은 정씨 사람들과 관계된 몇가지 외부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다. 정씨 남성들은 가족생활을 하면서도 빈번히 출타해서 영웅적인 활약상을 펼치는데, 예컨대 정치활동, 전쟁참여, 외직생활, 뜻밖의 모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고위 관직에 올라 가문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타 여성소설들처럼 이같은 외부 이야기는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중국소설에 의존하거나 매우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무엇보다 당시 규방여성의 특징적인 시각인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그려져 있다²¹⁾.

(3) 각색방향

대개 각색이란 잘 알려져 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전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널리 알리는 것으로, 단순히 원전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매체에 맞게 재탄생시키는 '또 다른 창조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각색 방법은 크게 원전을 충실히 재현하는 단순각색, 원전의 기본적인 주제의식은 살리되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등 일부 내용을 변형시키는 변안, 원전과 전체적인 흐름만 비슷할 뿐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는 개작 등이 있다²²⁾.

그런데 해당 작품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통 원전에 충실한 각색을 하곤 한다. 즉, 되도록이면 원전 속의 많은 에피소드를 그대로 살려 쓰는 것이다. <완월>도 역시 원전에

20) 정창권, 앞의 책, 2002, 127~128면 참조.

21) 정창권, 앞의 책, 2002, 128~130면 참조.

22)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쉽게 개발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86~88면.

충실한 각색이 바람직할 듯하다. 다만 작품의 주제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각색하고자 한다.

먼저, 원전의 흐름을 따라가되 사건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자 한다. <완월>은 인물들의 인생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총체적 기술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갈등 당사자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인물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전개하다 보니, 종종 이야기가 장황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것처럼 장황한 내용들을 가급적 생략하고 사건 중심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사건 전개와 별로 무관한 일부 단편적인 생활상도 생략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월>은 가족들의 생활상 그 자체를 거의 독립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들은 사건 전개와 별로 상관없이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는데, <완월>의 장편화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폭넓게 엿볼 수 있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위한 각색 작업에서는 시간 관계상 꼭 필요한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생략하고자 한다.

또한 <완월>은 정씨 가족들에 얽힌 모험담, 전쟁담, 관직생활 등 외부세계를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드라마 매체의 특성상 이것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감히 생략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인 가족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와 같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고전소설의 전형적 특성인 우연성이나 환상성 등도 가급적 자제하고자 한다. 물론 삶과 죽음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거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하기도 하며, 원한을 품고 죽은 여인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등 일부 판타지적 내용은 작품의 재미와 감동을 위해 그대로 두고자 한다.

한편, 앞에서 설명했듯이 <완월>은 정씨 가족의 중심 이야기보다 그들을 둘러싼 주변 이야기가 유독 발달한 소설이다. 그런데 이는 자칫하면 내용이 산만하게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변 이야기 도중에 가끔씩 정부 사정을 들려줌으로써, 중심 이야기와 주변 이야기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전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성염 이야기는 비록 재미있고 중요하지만, 너무 독립적일 뿐 아니라 이 작품의 내용과 이질적이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끝으로, 필자가 <완월>의 인물사전을 만들면서 직접 조사해보니, 이 작품에는 주연, 조연, 단역 등을 포함해서 무려 140여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때문에 드라마에서 이들을 모두 살려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사건 전개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폭 축소하고자 한다. 또, 캐릭터 설정 시 나이의 경우는 드라마 제작을 위해 현대적 관점에서 재설정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결국 드라마를 위한 각색 작품에서는 정씨 가족의 중심 이야기와 그를 둘러싼 여타 가족이나 인물들의 주변 이야기가 서로 자유롭게 교차되며 전개될 듯하다. 그리고 중심 이야기에서는 계후갈등과 부부갈등, 용서갈등이 주요 플롯을 형성하고, 주변 이야기에서는 한난소, 여씨, 만초란·석순용, 해룡공주 이야기 등 여러 가족이나 인물들의 활약상이 주요 내용을 이룰 듯하다.

(4) 시놉시스

① 캐릭터 설정

시놉시스(Synopsis)란 작품의 개요, 곧 주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기획의도와 등장인물, 줄거리 등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기획의도에 대해선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등장인물, 곧 캐릭터는 머릿속에 선명히 떠오르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대개 작품의 주연, 조연, 단역 등의 순서로, 나이와 외모, 성격, 습관, 작품 내의 역할과 내용 등을 차례대로 소개하면 된다. 물론 등장인물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완월>의 주요인물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서태부인(60세~90세)

정씨 집안의 여가장. 때론 인자하게 때론 매섭게 자식들을 타이르고 깨우치면서 집안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명백한 잘못을 목인하면서까지 친인척간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또한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는 자식들을 계속 출사시켜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기도 한다.

■ 정잠(40세~70세)

정씨 집안의 제2대 장자이자 공신(功臣).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계속 출사하여 공을 세우고 가문의 지위를 상승시킨다. 한데, 그는 비록 집밖에서는 화려한 영웅이나 집안에서는 언제든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평범한 자식에 불과하다. 특히 그는 가문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여 계속해서 후처 소교완과 계후갈등을 벌인다.

■ 소교완(20세~50세)

정잠의 후처이자 총부(집안의 맏며느리).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고집이 세다. 정씨 집안의 가장 대표적인 악인형 인물이지만, 분명한 현실적 근거가 있는 '이유 있는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소교완은 후처로 들어오긴 했지만 엄연히 정씨 집안의 맏며느리인 총부였다. 하지만 남편 정잠은 양자인 정인성과 전처 양씨만을 생각하며, 소교완과 친자식들에겐 냉담하게 대한다. 이에 따라 소교완은 자의식을 발휘하며 나이 많은 남편에게 갖은 불만을 표시한다. 특히 그녀는 양자로 들어와 정씨 집안의 계후자가 된 정인성과 그의 아내인 이자염을 온갖 방법으로 죽이려 한다.

■ 정인성(18세~48세)

정씨 집안의 제3대 계후자. 원래 작은집인 정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큰집인 정잠에게 아들이 없어 양자로 들어가 계후자가 된다. 정인성은 집안에서는 지극한 효자이고, 집밖에서는 화려한 영웅이다. 수려한 외모는 물론이려니와, 신이나 자연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신화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남자이다. 그래서 못 여성들이 그를 흠모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여성들은 그에게 직접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도 한다. 특히 그의 안남정벌 과정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야말로 봉건적 금기를 뒤흔들만한 사랑을 시도한다.

■ 정인광(16세~46세)

작은집인 정삼과 화씨의 둘째 아들로, 정씨 집안의 제3대 인물이다. 그도 역시 집밖에서는 화려한 영웅이나,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평범한 자식에 불과하다. 특히 그는 장인 장모인 장헌과 박씨의 잘못을 아내 장성완에게 전가하며 심한 부부갈등을 일으킨다.

■ 장성완(16세~46세)

장헌과 첩 박씨의 딸이자 정인광의 아내. 그녀는 박식하고 문필에 뛰어나며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부모의 실덕(失德)과 무능함 때문에 어릴 적부터 슬한 고난을 당하고, 정인광과 결혼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부갈등을 겪는다.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성품도 아니었으니, 그녀는 비록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남편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의연히 맞선다.

■ 한난소(18세~48세)

부마 한제선과 영능공주의 딸로서, 본래는 군주였다. 하지만 가족불화로 일찍이 친부모와 이별하고 정씨 집안의 서자인 정염의 처 화부인에 의해 자라난다. 그녀는 보기 드문 절색이자 고결한 기상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더욱 기구한 운명을 살아간다. 특히 어린시절 정씨 집안에서 모함사건을 당한 뒤 평생 독신으로 살고자 하다가, 결국엔 사회적 압력으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된다.

■ 여씨(17세~20세)

권세가의 딸이지만, 외모가 매우 거칠고 못생긴 추녀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열등감은 전혀 없는 여인이다. 그녀는 장씨 집안으로 출가하나 외모로 인해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 만초란(16세)

양주자사의 딸로, 용모와 재주가 매우 뛰어난 여자이다. 한번은 정인성이 안남으로 출정하던 도중 양주지방을 지나는데, 만초란이 그의 풍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여 사랑에 빠진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말을 흠쳐 타고 정인성의 뒤를 쫓아 석순영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다.

■ 석순영(17세)

하남의 절도사 석현의 딸. 그녀는 도적들에게 붙잡혀가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때마침 안남으로 가던 정인성에 의해 구출된다. 이후 그를 사모하여 만초란과 함께 따르려고 하지만, 정인성의 질책으로 부끄러움만 당하고 만다.

■ 해릉공주(17세)

안남왕의 큰딸. 절색의 미녀로,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독신으로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맹렬하고 담대한 여자이다. 비록 아버지의 흥계에 의한 것이지만 적장 정인성과의 사랑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허구였음이 밝혀지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만다.

② 스토리라인

보통 시놉시스의 줄거리, 곧 스토리라인은 인물들이 펼치는 주요한 사건들을 처음과 중간, 끝의 순서대로 요약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물론 그러면서도 호기심과 흥미로움을 놓치지 않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의거하여 <완월>의 스토리라인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 첫장면

- 정잠이 잔치를 열고 조카 정인성을 양자로 들여 집안의 계후로 삼음을 널리 알린다.
- 잔치를 과한 후 남자들이 완월대에 올라 자녀들을 정혼시킨다.

■ 계후갈등1

- 정잠이 소교완을 후처로 들고서도 첫날밤부터 박대한다.
- 정한이 죽은 뒤 가족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태주로 가는데, 소교완이 맹추, 왕술위를 보내 정씨 자녀들을 해치도록 한다.
- 정씨 일행은 정인성, 정인광, 정월염 등의 자녀들을 잃고 통곡한다.

■ 전쟁담1

- 북노 마선이 침입하자, 환관 왕진이 전횡하며 천자의 친정(親征)을 주장한다.
- 천자는 조세창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정하여 마선에게 붙잡힌다.
- 정잠이 어머니 서태부인의 지시를 받고 천자를 구하러 간다.

■ 모험담

- 실종되었던 정인광이 요도(妖道)들을 물리치고 정월염을 구하여 돌아온다.
- 도중에 도적을 만나 낙성촌으로 가는데, 때마침 안찰사로 와 있던 장헌이 그를 보고도 모른 채한다.
- 정인광이 여장(女裝)하고 장헌의 첩으로 들어가 회롱하고, 다시 상경(上京)하여 태운산 옛집에 머문다.
- 장성완이 범경화의 모함을 받아 자해(自害)하자, 정인광이 약으로 구호한다.
- 정인광이 장헌을 혼쫓내고 도망하여 가족들과 만난다.

■ 전쟁담2

- 정잠이 천자를 찾아오자 마선이 그를 좋아하여 신하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정잠은 조세창과 함께 절의를 지키며 옥에 갇힌다.
- 실종되었던 정인성이 아버지 정잠을 찾아온다.
- 마선이 정잠과 조세창을 불모로 잡고 천자를 환국(還國)시키더니, 얼마 안 있어 그들도 모두 돌려보낸다.
- 천자는 정잠과 조세창을 후대하고, 그들의 가문도 정상을 회복한다.

■ 부부갈등1

- 정인성은 이자염과 혼인하고, 정인광은 장성완과 혼인한다.
- 한데, 정인광이 계속 장성완을 찾아가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 한난소 이야기

- 정잠이 후처 소교완의 소생인 정인증을 박대하고, 양자이자 계후자인 정인성을 극찬한다.
- 정인증이 독약으로 형 정인성 부부를 이간코자 하는데, 엉뚱하게도 한나소가 범인으로 지

목된다.

-모함에 빠진 한난소는 우물에 몸을 던지고, 그 와중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집으로 돌아간다.

-이로부터 그녀는 독신을 주장하며 계속 학문에만 전념한다.

■ 부부갈등2

-장성완의 어머니 박씨가 불경(佛經)을 보내 읽으라고 하는데, 하필 정인광이 이를 알고 이교(異敎)를 숭상했다고 주장하며 장성완을 출거시키려고 한다.

-또한 박씨는 정씨 집안을 찾아와 정인광과 그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한다. 이에 정인광이 그 죄를 장성완에게 전가하며 예부(禮部)에 이혼을 요구한다.

-정인광이 계속 장성완에게 자결하기를 요구하자, 집안 어른들이 장성완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정인광에게 체벌을 가한다.

■ 여씨 이야기1

-장헌이 부귀를 탐하여 추물 여성인 여씨와 결혼시키자, 장세린은 신혼 첫날밤부터 밖으로 뛰쳐나가 방탕한 생활을 계속한다.

-하루는 장세린이 미인도(美人圖)를 얻어 상사병에 빠진다. 한데, 그 미인도의 주인공은 자기 집안과 원수지간인 정염의 딸 정성염으로 밝혀진다.

-장헌 부부가 요약(妖藥)을 먹고 장세린과 여씨를 화합시키려고 하나, 이 일로 인해 도리어 여씨가 친청으로 쫓겨나게 된다.

-장세린이 상사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장헌이 여씨와 정씨 집안을 차례로 방문하여 장세린과 정성염의 혼인을 허락받으려고 한다.

■ 만초란 · 석순영 이야기

-안남에 도적이 극성을 부리자 정잠과 정인성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한다.

-그들이 양주땅을 지날 때 양주 자사의 딸 만초란이 정인성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이에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흠쳐 타고 정인성의 뒤를 쫓는다.

-정인성은 또 석혈(石穴)에 갇혀 있던 석순영을 구해주는데, 그녀도 역시 정인성을 흠모하여 따르려고 한다.

-석순영이 먼저 찾아가 청혼하자, 정인성이 질책하고 돌려보낸다. 그것을 본 만초란은 낙담한 채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고 만다.

■ 해릉공주 이야기

-정잠과 정인성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안남으로 들어가 수많은 적들을 생포했다가 살펴본다.

-궁지에 몰린 안남왕이 딸 해릉공주를 이용해 정인성을 죽이고자 한다.

-한데 이 일은 실패로 끝나고, 해릉공주는 자신의 사랑이 허구였음이 밝혀지자 칼을 들어 자결한다.

■ 계후갈등2

-정인성이 집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으니, 소교완이 그들 부부를 시기하여 계속 없애고자

한다.

- 한번은 소교완의 모해로 정인성이 아내 이자염을 벽실에 가두기도 한다.
- 소교완의 어머니 주부인이 딸의 실덕(失德)을 듣고 걱정하다가, 우선 소교완의 시비들을 잡아들여 모든 사실을 알아낸다.
- 주부인이 소교완과 정인증을 불러 질책하지만, 소교완은 전혀 수긍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주부인이 독약을 주어 자결토록 하는데, 다행히 정인성 부부가 달려와 만류한다.
- 서태부인이 주부인에게 과거의 악행은 개의치 않으니 빨리 돌려보내라고 한다.

■ 용서갈등

- 하루는 장헌이 정씨 집안을 찾아왔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나 사위 정인광이 외면해버린다. 장헌은 집으로 가서 곧장 딸을 돌아오도록 시킨다.
- 장성완이 남편의 답변을 기다리지도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니, 분노한 정인광이 잠시 출타하여 기운을 삭히고자 한다.

■ 계후갈등3

- 전쟁에서 돌아온 정잠이 소교완의 실덕을 말하고 출거시킨다.
- 소교완은 친정으로 돌아가던 도중 자결하나, 가족들의 구호로 간신히 살아난다.
- 서태부인이 소교완의 복귀를 요청하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반대하며 소교완을 찾아간다. 이에 정잠이 마지못해 소교완을 맞아오도록 시킨다.

■ 여씨 이야기2

- 마침내 장세린이 정성염과 혼인한다.
- 이후 장세린이 과거에 급제하자, 여씨가 소식을 듣고 찾아와 발악하다가 띠집에 갇힌다.

■ 계후갈등4

- 주부인이 죽은 뒤, 소교완은 종기로 인해 기운이 막혀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 소교완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선계(仙界)로 가서 죽은 모친과 양씨를 만나 개과천선하기를 요청받는다.
- 소교완이 깨어나 저승에서 가져온 <명사일기>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한다.

■ 여씨 이야기3

- 여씨가 후당에 갇힌 채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장세린은 약도 주지 않는다.
- 결국 여씨가 죽으니 장창린이 자기집 선산에 묻고자 한다. 이에 여씨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 장씨 선산에 묻히길 거절한다. 여씨는 또 장씨 집안을 찾아가 시부모를 괴롭힌다.
- 장헌이 죄를 뉘우치고 여승 정혜심으로 하여금 제를 올려 여씨의 혼백이 극락왕생토록 한다.
- 여씨는 마지막으로 장세린을 찾아가 벌을 주고 하늘로 돌아간다.

■ 마지막 장면

- 서태부인이 중병에 들자, 소교완이 자신의 나이를 덜어 서태부인에게 주도록 하늘에 축원한

다.

-하지만 서태부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천자가 직접 찾아와 조문한다.

Ⅲ. 멀티유즈화 방안

최근 문화콘텐츠의 특징은 하나의 제대로 된 소스를 토대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화콘텐츠가 현 시대에 와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데,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원소스 멀티유즈 방법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금씩 시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처음 기획단계부터 원소스 멀티유즈를 고려하고 <완월>의 문화콘텐츠화 작업에 들어가고자 한다.

일반적인 원소스 멀티유즈 방법은 하나의 킬러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의 캐릭터나 스토리 등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상품을 개발하곤 한다. 하지만 필자는 <완월>이란 고전 명작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의 작품으로는 출판과 드라마 콘텐츠를 개발하고, 작가와 작품 등을 둘러싼 외적인 문제로는 영화 콘텐츠를 개발하며, 기타 공연이나 전시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완월>에 관한 출판물부터 만들고자 한다. 출판은 1차 원소스집으로서 이후 다양한 매체와의 결합이 수월하며, 책 자체가 갖고 있는 성공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는 책 자체의 성공과 함께 영화, 캐릭터, 게임, 관광상품 등으로 전환되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드라마를 위한 원소스집, 곧 이야기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 드라마화 가능성도 좀더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완월>을 비롯한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축약본에 대한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들 소설은 문화원형적 가치가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서나 각색본이 출간되지 않았고, 심지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역주본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드라마 콘텐츠를 개발하기 전에, 우선 <완월>에 관한 대강의 줄거리를 제공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할 듯하다.

이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누가 보아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집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앞의 시놉시스와 같이 각색하되, 시퀀스별로 소제목을 자주 달아주고, 문체도 고어의 맛을 살리되 가급적 현대어로 바꿔주며, 기타 관련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 등 시각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필자는 <완월>에 관한 영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영화도 드라마나 출판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매체이다. 또한 영화는 종합예술이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시도들을 해보기에 적합한 장르이다.

<완월>은 당시로선 워낙 문체적인 작품인지라 그 작가와 작품 등을 둘러싼 외적인 문제들을 토대로 한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영화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인데, 현대의 한 연구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간접적으로 과거 사실들을 들려주고자 한다. 예컨대 어느 연구자가 처음 이 작품을 만나게 되는 기이한 체험

에서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새로운 사실들의 발견에 따른 충격, 글로벌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지와 시도, 이러한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겪는 삶의 애환 등을 다양한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영화적으로 재미있게 풀어가고자 한다. 물론 이 영화의 이야기도 필자가 직접 쓰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이 작품에 관한 공연, 특히 뮤지컬을 개발하려고 한다. 뮤지컬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대중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계속해서 개작과 수정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뮤지컬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다. 뮤지컬은 잘만 만들면 10년을 넘길 수도 있으며, 다시 영화나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전 세계에 공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을 수도 있다²³⁾.

지난 2005년에 필자는 문화기획(주)메두사와 함께 <완월>을 토대로 공연콘텐츠를 기획했다가, 회사의 사정상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 필자는 이를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완월>의 창작과정을 둘러싼 18세기 예술문화사를 토대로 한편의 뮤지컬을 개발하려고 한다.

기타 필자는 <완월>을 포함한 조선시대 대하소설에 관한 전시회, 더 나아가 일기와 고문서, 시조, 가사, 소설 등과 함께 '조선시대 여성들의 기록문화'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전시회는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우므로, 여타 교회화나 문방사우, 닥종이 인형 같은 소품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전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전시, 곧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따라 전시물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필자는 <완월>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180권 180책 <완월>은 우리나라 소설사 뿐 아니라 세계 소설사에서도 획기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진다면, 충분히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고 본다.

서양의 경우는 일찍부터 여성소설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재창조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가령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의 <오만과 편견>, <지성과 감성> 등은 여러 차례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었고, 브론테 자매의 <폭풍의 언덕>, <제인 에어>(1847년 출판)도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들 작품은 '세계 명작'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완월>을 비롯한 우리의 여성소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7세기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쓰여졌음에도, 현대에 들어와서야 겨우 알려지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재창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조차도 내버려두고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23)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34~150면 참조.